

도시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황 미 영(울산자활지원센터)

I. 서 론

고령화 추세의 진전¹⁾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가운데 노인복지는 점점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최근에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 노인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리고 소득의 기회가 차단되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도시 저소득층 노인에게 비공식 지지망(informal support network)은 노령기의 경제적 '사회적 원조의 유일한 대처자원으로 중요하게 기능하게 된다. 이들 비공식 지지망 자원은 복지국가의 쇠퇴에 따라 점증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장기보호 욕구를 해결하는 보완적 원조자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 이후 노인에 대한 사회사업 개입은 노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들의 장기적 부양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원조의 출처로서 공식적 지지망과 비공식적 지지망의 협력적 관계를 현실적인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보호를 강조해 왔다.³⁾ 지역사회보호에서 강조되는 중

-
- 1) 1998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05만 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6.6%이며, 오는 2000년에는 약 7%, 2022년에는 13.2%으로 추계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경희(1998),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25호, p.14.
 - 2) 199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노인의 규모는 생활보호대상 노인(24만 7천명)과 경로연금 수급대상 노인(41만 1천명)을 합치면 65만 8천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21%에 이른다. 원종욱·양시현(1998),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요예산 추계", 보건복지포럼, 37.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노인을 이들 가운데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제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 노인에 국한시켜 경험적으로 규정한다.
 - 3)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의 공적 영역 개입도 노인을 가능한 한 자신들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려는 목적 아래, 탈시설적이고 소규모인 비공식 지지망의 동원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보호의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 그에 따라 최근 들어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비공식 지지망은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유행하고 있다(Moroney,

요한 초점은 노인의 연속적 보호(continuum of care)를 위한 비공식적 지지망과의 협력적 관계의 개념이다. 이때 공식적 지지망 개입의 방향은 비공식 지지망을 노인의 건강증진과 대인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활용 수단으로만 보기보다는, 비공식 지지망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고유한 원조기능을 강화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방식에서 전개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 및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방식에 대한 세밀한 사정 및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하는 노인복지 환경과 더불어 이와 같은 개입 접근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상실되었거나 중요한 비공식 관계들을 강화, 개발시키는 지지적인 환경적 원조를 중요한 초점으로 부각시켜 온 것이다.⁴⁾

한편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장기보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형태를 노인복지의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사업 개입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노인이 속한 비공식 지지망 자원의 가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식을 기초로 해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사회사업 연구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잠재적 클라이언트 집단인 도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복지에 중요한 사회적 환경인 비공식 지지망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최근의 실천적 흐름을 반영하면서 특정 지역사회의 잠재적 노인 클라이언트집단이 갖는 비공식 지지망 자원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각각 구조(structure)와 기능(functioning)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다. 특정노인집단이 속한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정정보는 첫째 적합한 수혜 대상 노인의 선정기준과 사회사업 개입에 대한 욕구를 예견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둘째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천 원칙을 도출하는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에 관해서도 사회적 지지망 개념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논의가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⁵⁾은 주로 일반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구조를 독

1987: 22).

4) Whittaker et al.(1986), Beckett et al.(1987), Wenger(1994)와 McIntyre(1986), "Social Networks: Potential for Practice", *Social Work*, November-December, pp. 421-426 등.

5) 박경숙(1998)과 변영우(1990), "한국노인의 비공식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 부양자, 노인, "효" 태도, 노인의 비공식 지원망,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 연세대 석사논문. 서희숙(1993), "일부 도시노인의 가족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중앙의화*, 제58권 8호, pp. 529-538. 성규탁(1990), "한국노인의 가족중심적 상호부조망", *한국노년학*, 제10호, pp. 163-181. 성규탁박영란(1988),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겨울호. 윤경아 외(1992), "노인의 고질적 건강요인, 사회적 지원과 안녕상태", *한국노년학*, 12권, 1호. pp. 56-65. 최정아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권, 1호. pp. 37-45

립변수로 하여 그것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묘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사업 개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대상과 개입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는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상이한 상태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들을 비교, 고찰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것이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서 구체화되는 메카니즘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는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과업을 원조하는 비공식 관계들의 기능에 차이를 가져오는 상이한 특성의 유형들로 존재한다.⁶⁾ 따라서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은 그것의 자원을 제공하는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와 연계시켜 고찰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공식 지지망 연구의 영역은 구조와 기능 측면이라는 서로 연관되는 두 부분을 포함시켜야만 완전하게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일반노인에 관심을 두고 있어,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이 좀더 중요한 집단인 도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연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 저소득층 노인이 갖고 있는 비공식 지지망 구조와 기능의 특성은 일반노인과는 달리 필요한 지지와 자원을 획득해야 할 상황에서 노인의 능력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 가운데서도 확대가족, 친구, 이웃 등과 접촉하고 원조받는 정도는 복합적인 개인적 요인들에 따라 차이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가족의 해체 경향 가운데 국가의 공적 부조 수혜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도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령기 지지과업의 원조를 책임져야 하는 비공식 지지망의 특성을 그것의 구조와 기능의 관련성 아래 경험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속에서의 인간관'을 지속시켜 온 사회사업이 비공식 지지망의 강점을 최대화하는 가운데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개입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실천의 방향과 체계적 지침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먼저 도시 저소득층 노인이 처한 서로 다른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유형화시켜 비교, 해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별 해당 노인의 망 구조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욕구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각 유형 노인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배우자, 혈연, 친구, 이웃 등과 같은 대인관계 자원들을 확인하고 이들과 유지하는 사회적 접촉의 패턴, 해당 노인의 위험정도, 망 유형내 고유한 지지의 잠재성 등을 관찰한

등.

6) Antonucci and Depner(1982), "Social Support Informal Helping Relationships", In Willis, T. A.(ED.), *Basic Processes in Helping Relationships*, Academic Press, New York, pp. 233-254.

다.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비공식 지지망 유형의 전체적 분포를 통해 그것의 두드러진 구조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상이한 대인환경 자원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다음으로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과 관련해서는 첫째, 노인의 정서적 지지과업, 도구적 지지과업의 영역에서 실제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원조자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 비공식 관계들이 누구인지를 직접적 가족(배우자, 자녀 등)과 친척(형제 및 기타 친척), 비혈연(이웃, 친구)에 걸쳐 비교 고찰함으로써 해명한다. 여기에서 논의의 초점은 지지과업별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원조자가 혈연과 비혈연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분화되는지, 아니면 지지과업에 상관없이 위계적으로 서열화되는지, 그리고 혈연 내에서 위계적 서열이 발생하는지의 여부가 될 것이다.

둘째, 앞서 도출된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적 유형별로 정서적, 도구적 지지과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최적으로 기능하는 원조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한다. 이때, 직접적 가족이 부재하거나 가용하지 못한 유형의 망 안에서 정서적 지지과업, 도구적 지지과업의 각 영역에서 대안적인 원조자가 친척, 비혈연 등으로 대체, 보완되고 있는지를 망 구조와 망 기능의 관련성 아래 밝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보다 대체가 어려운 지지과업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요한 주제인 '관계전문화'와 '대체'의 쟁점을 기초로 분석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을 묘사하는 두가지 이론적 모형들, 즉 위계적 보완모델과 특정 과업모델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나라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좀더 적합한지를 검토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사업실천 개입의 실천적 방향을 세우는데 필요한 이론적 합의와 경험적 근거를 얻으려고 한다.7)

II. 이론적 배경

1.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와 기능 : 개념정의와 측정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특성이 원조계획에 중요하게 고려되면서, 그것의 복합적 속성은 각각

7) 본 연구가 Cantor의 위계적 보완모델에 좀더 치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일반 노인에 대한 기존의 비공식 부양 관련연구들에서 노인들이 대부분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상황에서 친구, 이웃들보다는 가족을 사회적 지지의 우선적인 출처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규탁(1990), 이가옥(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이가옥(1994),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6) 등.

구조와 기능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시켜 사정되고 있다. 각각의 이론적 기초에는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존의 사회노년학에서의 연구 성과가 적극 응용되고 있다.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란 사회적 지지과업을 원조하거나 원조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관계들-배우자, 자녀, 형제친척, 이웃, 친구, 지역사회 등-과 이들 관계들간의 연계로 나타나는 전체적 망의 양상(aspects)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이란 비공식 지지망 구조 안에서 특정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교환되는 능동적 과정의 특성과 적절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비공식 지지망 구조의 사정은 노인이 현재 관계하고 있는 비공식 관계들의 존재(또는 양)와 질의 특성을 해명하는 것을 초점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은 결혼 유무, 접촉빈도, 지역사회 참여수준, 크기(size), 밀도(density), 거주 거리(distance), 구성(composition)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별 측정변수들을 기초로 하여, 도시 저소득층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가용한 비공식적 원조관계가 누구인지를 예견하고 그들과 노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양적, 질적 관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에 대한 사정은 비공식 지지망 구조를 형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 관계들로부터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과정의 역동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비공식 지지망 구조에서 밝혀진 성원들의 역할을 비교하거나 그들이 제공한 사회적 지지의 형태,⁸⁾ 그리고 그것의 양과 적절성을 해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정상적인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비공식 지지망은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가 변함에 따라 확장,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일상적으로 가용한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와 기능은 노인의 상황적, 인성적 특성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⁹⁾ 특히 노인의 성과 결혼상태, 그리고 자녀가용성은 비공식 지지망 구조와 기능의 양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¹⁰⁾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적 틀은 구체적인 사회적

8) 한편 사회노년학에서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Cobb이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형태로서 강조한 정서적 지지로, 개인의 심리적 자존감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서적 지지는 감정적, 감정이입적, 또는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성상 인성적, 사적 또는 고백적 지원의 내용들로 구성된다. 다른 하나는 도구적 지원들을 지원하는 도구적 지지로, 노인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정보, 서비스 및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병들었을 때의 간호, 물질적 원조, 쇼핑 지원, 지식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9)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지지망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왔다.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친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비공식적 관계들로 구성되는 대규모 지지망을 갖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Taylor et al(1986), Antonucci(1985)와 Krause and Borawski-Clark(1995), "Social Clas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Vol 35, No.4, p. 9 참조.

지지과업을 원조하기 위한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그런데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와 기능을 해명하기에 앞서 망에 포함시킬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 관계들에 대한 성격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이 상호작용하는 비공식 지지망 안에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지의 잠재적 출처를 제공하는 많은 구체적인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은 사회적 지지과업에 연관되어 서로 다른 중요성과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¹¹⁾ 따라서 비공식 지지망에 포함시킬 구성원의 성격을 규정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지망 구조와 기능의 양상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¹²⁾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의 특성을 구조와 기능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탐구하고 그것의 역동적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이 때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는 영역접촉 접근방법에 의해 지지망 구성원을 직접적 가족, 친척, 비혈연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구체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영역의 비공식적 관계들의 가용성과, 이들과 유지하는 관계의 양적·질적 특성의 양상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상이한 비공식 지지망 구조를 유형화시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에 대해 노인에게 일상적으로 가용한 다양한 영역의 비공식적 관계들 가운데 사회적 지지 과업-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의 각 영역에서 실제로 동원되고 가장 적절하게 고려되는 원조자를 배우자, 자녀 등의 직접적 가족, 형제 및 기타 친척과 같은 친척, 이웃, 친구라는 비혈연에 걸쳐 비교 고찰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비공식적 관계들은 노인에게 구체적인 지지과업을 실제로 원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환 접근방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비공식 지지망 구조의 특성과 유형화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구체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을 가진 비공식적 관계들의 가용성과 이들과 유지되고 있는 관계의 양적·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구조적 양상은 다양하게

10) Connidis, I.A. & Lorraine, D.(1992), "Confidants and Companions: Choices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Vol. 47, p.115.

11) Ward(1985), "Informal Network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 Research Agenda", *The Gerontologist*, Vol.25, No.1.

12) 노인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집단들 가운데 비공식 지지망에 포함시킬 관계의 범주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목적 및 관심 주제에 따라 상호작용적 접근, 역할관계접근, 애정적 접근, 교환 접근, 영역접촉 접근등 5가지 접근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유형화될 수 있다.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유형화 접근은 새롭게 시도되어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복합적 유형화 기법은 지지적 관계의 양적, 질적 변수들을 개별적 목록에 따라 설명하던 기존의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망 구조의 다차원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구조적 지표를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형화의 목적은 지지망의 구조적 연계와 상호작용적 특성들을 집락화하고 각 집단들간의 체계적인 공분산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화 접근은 교환된 지지 및 원조의 내용 보다는, 노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망의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공식 지지망의 유형을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로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적 접근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망 분석 방법들이 망 구조의 상호작용적 특성만을 제시할 뿐, 개별 노인의 다양한 정보를 식별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이다.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적 유형화는 사회사업에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맥락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실천적 활용성을 좀더 높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사업개입과 관련하여 지지망 유형 연구는 특정 지역사회의 망 유형 분포를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가용한 지지제공자의 특성, 사회인구학적 변수, 건강욕구 변수, 문제유형의 관련성을 예견케 해 주기 때문이다. 유형화 접근은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적 양상을 통해 표적 노인 인구의 위험정도, 망 유형의 고유한 지지에 대한 잠재성 등은 물론, 노인을 둘러싼 다양한 대인 환경을 구별시켜 줌으로써 신뢰할 만한 사정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¹³⁾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의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Wenger(1984, 1989, 1990)의 질적 접근과 함께, 복합적 유형화를 피하는 Litwin(1995, 1997)의 양적 방법에 의한 망 분류가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대한 관점들: 위계적 보완모델과 특정과업모델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은 특정한 욕구상황 때 노인이 그들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 안에서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비공식적 관계들을 사정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기존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관한 연구들은 도구적 및 정서적 지지과업의 각 영역에서 노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원조하기 위해 강화시켜야 할 구체적인 비공식 관계들을 조사해 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한 비공식 관계들이 없는 경우 대안적인 대체 원조자를 보완하기 위한 실천전략들을 구체화시키기도 한다.¹⁴⁾

13) Wenger(1994).

그런데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에서 확인된 다양한 비공식 관계들이 노인의 정서적 및 도구적 지지과업을 둘러싸고 동원되는 기능의 과정을 묘사하는 데 두 개의 상이한 이론적 가설들이 있다. 이는 “위계적 보완”모델(hierarchical compensation model)과 “과업특정” 모델(task-specific model)이다. 이들 두 이론적 모델은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과업들을 원조하기 위해 다양한 비공식 관계들이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전문화(relationship specialization)와 대체(substitution)라는 두 개의 쟁점을 놓고 상이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Cantor¹⁵⁾에 의해 제안된 ‘위계적 보완모델’은 다양한 지지과업의 유형에 상관없이 노인에게 친밀하거나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비공식 관계들이 노인의 비공식 원조자로 선호되어, 다소 상호변동가능한 지지과업의 원조를 가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와 같은 직접적 가족이 비공식 원조자로 가장 먼저 선호되어 기능한다. 이들이 가용하지 않을 때에만 그 다음으로는 먼 친척이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뒤따르며, 마지막으로 공식적 조직이 위계적으로 보완된다고 한다.¹⁶⁾

따라서 노령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비공식 관계들의 상실과 붕괴에 대한 대안적 원조자의 대체가 별 어려움이 없이 가능하다고 파악된다. 이렇게 볼 때 좀더 효과적인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직접적 가족 및 혈연의 가용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가족기능의 지원과 강화를 바탕으로하면서 다른 종류의 비공식 관계들을 보완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Litwak¹⁷⁾이 제안한 ‘특정과업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노인의 정서적 및 도구적 지지과업의 각 영역에서 특정한 비공식 관계들이 서로 다른 지지과업을 원조하기 위해 전문화된다고 가정된다. 그 때문에 결합이 있거나 붕괴된 망의 재배열 가능성에 관해서도 대안적 대체가 제한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파악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인에게 가장 바람직하게 기능하는 비공식 지지망은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층적 유형의 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 관계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유지, 강화되는 것을 노인복지 서비스의 방향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14) Maguire, 장인협 외 역(1996), *사회지지체계론*, 사회복지실천연구소, p. 27.

15) Cantor, M.H. (1979).

16) Cantor(1975).

17) Litwak, E.(1985),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Networks and Family System*, Guilford Press.

4. 분석틀과 분석전략

본 연구의 분석 틀은 아래 그림과 같다. 여기에서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욕구특성은 독립변수로 설정되며, 비공식 지지망 구조는 매개변수,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은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와 기능을 다루는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틀에 의거하여 다음의 두 가지 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1단계에서, 본 연구는 군집분석 전략에 의해 우리 나라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이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의 양상을 유형화시켜 해명하고자 한다. 이 때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비공식 지지망 유형의 차별적 기준변수들- 비공식 관계들의 가용성, 접촉빈도 등 망 구조관련 속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응용하여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의 비공식 지지망 유형을 개발할 것이다. 군집분석은 선택된 기준변수에 따라 비슷한 사례들을 집단으로 묶어주는 통계기법으로서, 기준변수값의 군집중심을 발견하여 각 사례들을 가장 가까운 중심에 배치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¹⁸⁾

한편 군집 유형화에 의해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를 식별하고, 그러한 유형별로 망 구조의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욕구 특성을 분석한다. 이 때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비공식 지지망 구조의 유형이 독립변수이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욕구 특성이 종속변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후자가 독립변수로서 망 구조의 유형이라는 종속변수를 규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2단계는 정서적, 도구적 지지과업별로 앞서 살핀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다룬다. 이 때의 종속변수는 지지과업별로 실제로 기능하는 원조자의 구성이 되며, 1단계에서 종속변수였던 비공식 지지망 구조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욕구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로 설정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비공식 지지망 구조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단계의 연구수행 내용을 이론적 쟁점이나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지과업별 실제 원조자의 구성을 파악하는 비공식 지지망 기능의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는 주로 관계전문화 쟁점에 대한 해명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지지과업별 원조자 및 최적 원조자의 구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한다. 이에 덧붙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이러한 비공식 지지망의 전반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개괄적 특성을 검토한다. 다시 말해 지지과업별 원조자 구성의 개별 모델을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망 구조, 사회인구학적 특성, 욕구 특성이라는 세 가지 독립변수 중 어떤 요인이 대체로 유의미한 경향을

18) Litwin(1995), p. 161.

나타내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이 기능하는 조건 면에서 지지과업별 관계전문화 정도에 대한 분석전략은, 먼저 정서적 지지과업-외로울 때 말 상대, 어려운 일의 의논-과 도구적 지지과업-신체적 도움, 금전적 도움-의 네 가지 영역에서 도시 저소득층 노인에게 배우자, 아들(며느리 포함), 딸(사위 포함), 형제(자매)친척, 이웃, 친구, 기타(정부, 복지기관 사람, 종교기관 사람), 없음이라는 8개 종류의 원조자 모델 중 실제 원조자 및 최적 원조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빈도분석을 시행한다.

이 때 8개의 원조자 모델을 다시 직접적 가족(배우자, 아들, 딸), 친척(형제, 기타 친척), 비혈연(이웃, 친구), 기타, 없음이라는 5개 범주의 원조자로 구분하여, 4가지 지지과업의 차원과 관련하여 원조자로 조응되는 빈도의 상대적 분포를 비교한다. 그리고 지지과업과 상관없이 5개 범주의 원조자들이 위계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지과업에 따라 관계가 전문화되는지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직접적 가족, 친척, 비혈연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원조자를 밝힘으로써 관계전문화의 정도를 검증한다.

더 나아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4가지 지지과업의 차원별로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개괄적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빈도분석에 의한 관계전문화의 검증을 좀더 명확히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지지과업에 상관없이 망 구조 요인 중, 특히 배우자, 자녀 등 직접적 가족의 존재가 일련의 원조 기능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지, 아니면 정서적, 도구적 지지과업에 따라 서로 다른 망 구조 요인들이 비공식 지지망의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관계전문화의 정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비공식 지지망 구조와 비공식 지지망 기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는 무엇보다 대체의 쟁점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분석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앞서 도출한 비공식 지지망의 상이한 구조적 유형별로 지지과업에 따른 원조자 및 최적 원조자의 구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평균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밝힌다. 이 때 자녀가 부재하거나 가용하지 않은 유형의 망에서 정서적, 도구적 지지과업별로 형제, 기타 친척 등과 같은 친척, 이웃이나 친구 등의 비혈연으로 위계적으로 대체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대체의 원칙을 검증하려고 한다.

둘째 앞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거하여, 개별 원조자 구성 모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망 구조 요인을 일일이 검토한다. 예컨대 직접적 가족의 부재나 가용성을 나타내는 배우자 유무, 자녀유무, 자녀와의 지리적 거리, 자녀와의 친밀도를 독립변수로 할 때, 이러한 변수들이 형제친척, 이웃, 친구라는 원조자 구성 모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보다 작은 odds 값

을 갖는다면 비공식 지지망 구조 차원에서의 배우자, 자녀의 부재 또는 결함이 실제의 원조 기능에서 형제친척, 이웃, 친구로의 대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주변적인 쟁점이기는 하지만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욕구특성 요인을 세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것 역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사회인구학적 요인, 욕구특성 요인에 포괄되는 변수들이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세히 파악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연금 수급자 가운데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제외한 저소득층 노인 312 사례를 수집했다.¹⁹⁾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본 연구자로부터 집단별, 개인별로 조사 훈련을 받은 조사원들에 의해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조사기간은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40일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입력과 분석에는 SPSS/PC⁺가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통계기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상생활 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도의 측정용 척도 구성은 신뢰도 검증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편 도시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유형은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에 의해 도출되었다. 그리고 군집분석의 결과 도출된 망 유형들과 관련된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욕구의 특성은 교차분석, 평균분석 등을 통해 밝혔다.

다음으로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 가운데 관계 전문화의 검증은 지지과업별 원조자 구성 및 최적 원조자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대체의 검증은 앞서 도출된 비공식 지지망 유형별 원조자 구성 및 최적 원조자를 밝히는 교차분석, 평균분석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계 전문화 및 대체의 검증은 물론 원조자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지지과업별 원조자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망구조 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욕구특성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들은 배우자, 아들, 딸, 형제친척, 이웃, 친구, 기타, 없음 가운데 기타를 제외한 7명 원조자의 유무를 각각 모델화한 것이다. 원조자 중에 정부, 복지기관 사람, 종교기관 사람과

19) 조사대상 저소득층 노인의 구별 분포는 중구 60.3%, 남구 15.4%, 동구 10.6%, 울주군 13.8%이다. 울산시의 4구, 1군 가운데 북구는 표본 선정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의 경로연금 수급자 자체가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같은 기타를 제외한 이유는 원조자로 기능하는 빈도 자체가 너무 낮아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IV. 연구결과

1. 비공식 지지망 구조의 유형과 특성

그렇다면 우리나라 도시 저소득층 노인이 유지하고 있는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적 유형들은 어떠한가?

이러한 쟁점들을 해명하기 위해 유배우 비율, 접촉 자녀수, 형제접촉도, 의지할만한 친척이 있는 비율, 왕래하는 이웃이 있는 비율, 친구접촉도, 지역사회 접촉도라는 7개의 기준변수를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 유형은 자기제한적 지지망 유형이 가장 많은 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자녀의존적 지지망이 27%로서 친구 초점 지지망, 분산된 지지망, 형제 및 이웃 지지망보다는 좀더 큰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험적으로 도출된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의 비공식 지지망 유형은 하나나 둘 정도의 한정된 영역의 비공식 관계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공식 지지망 유형 가운데 노인 스스로나 배우자에게 국한되는 자기제한적 지지망과 자녀의존적 지지망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은 직접적 가족과의 교류 이외의 이웃, 친구, 지역사회 등과의 사회적 통합 정도가 매우 낮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지지망의 특성은 노령기의 의존적 욕구가 발생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 아니면 주로 자녀에게 책임을 집중시킴으로써, 원조자의 부재 상황을 넘겨나 부양자의 부담 정도를 매우 높게 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 보았다. 비공식 지지망 유형별로 망 구조의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욕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망의 크기, 자녀수, 이웃수, 친구수, 자녀의 지리적 거리, 자녀친밀도 등의 망구조 변수와 가구형태, 우울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반면에 형제수, 친척수와 같은 망구조 변수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및 주택보유형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의식,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의 욕구 특성은 지지망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첫째, 비공식 지지망 유형별 망 구조의 특성에서 망의 크기는 자기제한적 지지망이 가장 작으며, 분산된 지지망이 가장 크다. 그리고 자기제한적 지지망의 경우 자녀친밀도

와 자녀의 지리적 거리 또한 가장 낮다. 반면에 분산된 지지망은 자녀친밀도나 자녀의 근접거주가 가장 높으며, 자녀의존 지지망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친밀도나 지리적 거리와 같은 요인이 저소득층 노인의 다원적 비공식 지지망 형성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짐을 시사한다. 한편 망 유형별로 자녀수, 이웃수, 친구수, 자녀의 지리적 거리, 자녀친밀도 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형제수, 친척수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즉 이들 두 변수는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를 차별화시키는 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지망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가구형태를 보면, 자기제한적 지지망의 경우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이에 반해 분산된 지지망에서는 자녀동거가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자녀의존적 지지망의 경우에도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분산된 지지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필요함을 가리킨다. 한편 각 유형 별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및 주택보유형태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 유의도가 없었다. 이는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지지망 유형에 상관없이 저학력과 저소득이라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세째 비공식 지지망 유형별 욕구특성 가운데 우울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낸다. 우울도 점수는 자기제한적 지지망에서 가장 낮아 이들 노인이 우울을 좀더 많이 겪음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분산된 지지망은 우울의 정도가 가장 낮으며, 자녀의존적 지지망이 그 다음으로 낮은 우울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주관적 건강의식, 일상생활 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의 욕구 특성은 5개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2.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서의 관계전문화와 대체

끝으로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대해서는 Cantor의 위계적 보완모델과 Litwak의 특정과업 모델을 대비시킨 관계전문화와 대체의 쟁점을 중심으로 해명했다. 그 결과 관계전문화의 쟁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외로울 때의 말상대, 어려운 일의 의논상대라는 정서적 지지과업과 신체적, 금전적 도움과 같은 도구적 지지과업별로 원조자 구성 및 최적 원조자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지지과업에 상관없이 배우자, 아들, 딸과 같은 직접적 가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이 Cantor의 위계적 보완모델대로 지지과업에 상관없이 직접적 가족이 위계적으로 기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직접적 가족 다음으로는 친척과 비혈연 가운데 어느 집단이 차선적인 원조자로 기능할 것인가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원조자 구성에서는 지지과업과 상관없이 비혈연이 친척보다 더 많이 선택되는 데 비해, 최적 원조자로는 친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요컨대 비혈연과 친척이라는 두 집단 가운데 일상적으로는 비혈연의 원조가 더 많지만, 적절한 원조의 차원에서는 친척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직접적 가족 내에서는 배우자가 아들, 딸보다 우선적 원조자로 기능한다. 지지과업별 원조자 구성에서는 배우자와 아들, 딸의 선택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최적 원조자의 비율 면에서는 배우자가 아들, 딸보다 뚜렷이 선택되고 있다.

넷째, 비혈연 중에서는 이웃이 정서적 지지과업, 도구적 지지과업과 상관없이 친구보다 우선적 원조자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지지과업과 상관없이 전체 원조자 구성이나 최적 원조자 둘 다 이웃이 친구보다 높은 비율로 손꼽힌다. 즉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자원 결여는 지역 사회에서의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데 장애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은 지지과업별로 관계가 전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도구적 지지과업에 상관없이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접적 가족이 우선적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관계 전문화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Cantor의 위계적 보완모델이 타당한 셈이다.

이와 함께 도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직접적 가족이 가용하지 않거나 결함을 지닐 때, 친척이나 비혈연으로 지지기능의 대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유형별로 원조자 구성 및 최적 원조자의 비율을 교차해 본 결과, 지지과업에 상관없이 자녀의존적 지지망, 친구초점 지지망, 형제 및 이웃 지지망에서 원조자의 선택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 자녀의존 지지망의 원조자 및 최적 원조자 구성은 아들, 딸이 대부분인데 반해, 친구초점 지지망의 경우 친구가, 형제 및 이웃 지지망의 경우에는 형제친척과 이웃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체의 정도는 친구나 이웃보다 형제친척에서 훨씬 뚜렷한 편이다.

둘째, 친구초점 지지망에서 친구가, 형제 및 이웃 지지망에서 형제친척 및 이웃이 선택되는 비율은 도구적 지지과업보다 정서적 지지과업의 경우 더 높다. 이에 비해 원조자의 구성이나 최적 원조자 면에서 도구적 지지과업은 직접적 가족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 대체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셈이다. 다시 말해 도구적 지지과업에 비해 정서적 지지과업에서 대체가 좀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배우자 유무는 지지과업과 상관없이

원조자 구성 가운데 배우자 모델에 1보다 큰 odds 값을 나타내고, 형제친척의 선택과 원조자가 없는 모델에 대해서는 1보다 작은 odds 값을 갖는다. 배우자의 유무는 4개 지지과업의 차원들에서 모두 형제친척 원조자 모델에 대해 1보다 작은 odds 값을 보여, 망 구조에서 배우자가 결여되었을 때 형제친척이 대체됨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유무는 이웃, 친구 모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보다 작은 odds 값을 갖고 있지 않아 이웃, 친구로의 대체는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 배우자 유무가 원조자가 없는 모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보다 작은 odds 값을 갖는다는 사실은 망의 구조에서 배우자가 결여될 때 대부분의 지지과업에서 대체가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자녀 관련 망 구조 요인 가운데 자녀 친밀도와 자녀의 지리적 거리는 형제친척의 원조자 구성모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보다 작은 odds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유무 변수와 비슷하게, 이웃, 친구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녀와 친밀하지 않을수록, 또 자녀가 멀리 거주할수록 그러한 지지망 구조에서의 자녀의 결여를 형제친척이 대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의 검증에서는 배우자, 자녀, 형제친척, 이웃, 친구 등의 위계에 따라 원조자가 원활하게 대체되지는 않고 있다. 배우자, 자녀 등 직접적 가족이 없을 때 형제친척과 같은 친척으로의 대체는 뚜렷이 발견되나, 이웃, 친구 등 비혈연에 의한 대체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그 대신 아예 배우자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조자가 결여되는 '대체의 부재'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V. 제 언

지역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회사업개입을 계획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선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이들에 대한 정확한 욕구사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욕구를 사정하는 지침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갖고 있는 문제는 소득기준만을 중시함으로써 생활보호 노인만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인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발견이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복합적 지지욕구에 개입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회사업 개입의 방향에 주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의 한계로 인해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한정해야 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여부에 지나치게 얽매어서는 안된다. 그

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 수행능력상 높은 정도의 장애와 우울도를 가지면서도 비공식 지지망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기제한적 지지망 유형의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구조 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반 노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자기제한적 지지망 유형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일반 노인들에 비해 친족중심의 관계가 좀더 약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 가족, 또는 친척이 부재하거나 가용하지 못할 때,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의 비혈연 관계들과는 일상적인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되어 고립적으로 생활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²⁰⁾

더욱이 자기제한적 망 유형의 노인은 정신건강 면에서도 다른 유형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경제적 상태, 자녀와의 결속도, 거주형태, 가족수, 자녀와의 상호작용 등 가족중심적인 비공식 지지망이 노인의 안녕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²¹⁾

가족이나 비공식 지지망에 의한 부양을 권장하는 현재의 재가복지 서비스만으로는 자기 제한적 지지망 유형에 속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장기적 부양욕구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들의 장기적 부양욕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고립과 신체적 및 정서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공식적인 대안적 거주배열과 임상적 치료프로그램 등이 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이 처한 비공식 지지망의 강점을 최대화하는 가운데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개입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실천전략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직접적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보호능력을 보완하는 맥락에서 친척, 비혈연, 공식적 원조기능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개입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비공식 지지망의 구조적 유형과 기능에서 직접적 가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접적 가족의 가용성 요인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인의 비공식 관계를 구성하거나, 우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그들의 다양한 지지과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원조의 출처로서 가족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20) 이는 본 조사가 이루어진 울산광역시외의 경우, 재가노인 복지시설 수가 전국의 시도에 설치된 평균 6.5개에 훨씬 밑도는 낙후된 노인복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경희(1998), pp. 14-26.

21) 문애리(1996), p.99.

이와 함께 배우자, 자녀 등의 직접적 가족이 부재하거나 가용하지 못할 때, 친척으로의 체는 가능하지만 비혈연으로는 대체가 거의 되지 않고 원조자 부재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미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식적 지지망이 발달된 기존의 서구에서의 연구 결과들과는 뚜렷하게 다른 결과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측면과 임상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천적 제안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 다른 지지과업에 비해 도구적 지지과업 중 금전적 도움의 경우에는 비혈연 뿐만 아니라 친척으로의 대체도 거의 원활하지 못함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8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에게까지 경로연금제도가 확대된 것은 지극히 고무적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라는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금지원이 없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도시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노인부양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세대간 갈등이나 가족해체를 낳을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임상적 측면에서는 첫째, 저소득층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적 접촉은 물론 다양한 지지과업에서 드러나는 가족에 대한 강한 의존성은 달리 보면 가족의 높은 부양부담을 함축하는 것이다. 노인을 돌보는 과업은 가족들에게 불안, 우울, 침체, 신체적 문제, 가족갈등 등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주로 부양하는 가족의 비현금적 욕구들을 사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노령기 안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실천의 영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가장 중요한 원조자는 가족 가운데서도 배우자이다. 이러한 발견은 노령기 생활의 원조자로 노인부부가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서구에서의 최근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²²⁾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신체적 취약성의 증가로 말미암아, 자녀나 공식적 영역으로부터의 원조없이 노인부부가 일상생활의 과업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비공식 지지망의 유형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노인의 주관적 건강만족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장애정도가 뚜렷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혈연이 부재하거나 가용하지 못할 때, 정서적 지지과업에 비해 도구적 지지과업,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도움의 경우 대체가 좀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공식적 영역에서 도구적 지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곧바로 원조자 부재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정서적 서비스에 좀더 치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22) Cantor(1991), pp. 337-346.

감안할 때, 도구적 지지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들, 예를 들어 일시적 보호, 가족상담 및 교육서비스, 그리고 신체적 원조 및 일상생활의 가사지원 서비스 등이 좀더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